

研究論文

문헌 기록에 나타난 연산군 형상의 전승 양상

이기대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한국 고전문학 전공

rammasoon@empal.com

- I. 머리말
- II. 『연산군일기』의 편찬과 연산군에 대한 인식의 형성
- III. 폭군으로서 연산군 형상의 확산
- IV. 연산군 형상의 전형화와 변이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연산군(燕山君) 관련 기록을 토대로, 연산군에 대한 인식과 형상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연산군은 우리 역사상 가장 문란하면서도 포악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기억은 연산군이 반정(反正)에 의해 몰려난 이후 편찬된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에서부터 시작된다.¹⁾ 『연산군일기』에서는 연산군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의 음행과 폭정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사관(史官)의 부정적 평가가 덧붙여지면서 연산군이 왕으로서 얼마만큼이나 자질이 없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로 인해 연산군에 대한 관심은 연산군 이외의 폭군들이 역사적 원근감으로 인해 흐릿한 잔상만이 떠돌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특히 성군(聖君)에 대한 유교적 관념이 중요해질수록, 역설적 의미에서 감계(鑑戒)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폭군의 자리는 연산군의 차지가 되어왔다. 그리고 연산군이 폭군의 전형이라는 인식적 공유가 형성될수록, 폭군으로서의 형상은 점점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 연산군 당대의 상황 및 인물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부연되거나 새롭게 덧붙여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연산군 관련 기록에서 연산군의 형상과 인식은 지속적으로 재현되면서 강화되어왔고, 기록의 변이를 통해 연산군을 바라보는 시각도 더욱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의 변화는 후대의 문집과 패설, 야담 등의 문헌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헌 기록은 상대적으로 변이과정이 수월하며, 연산군에 대한 당대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채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 기록과 다른 방식으로 전승되던 문헌 기록에 나타난 연산군 관련 기록을 응집시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산군에 대한 관심은 연산군 재위 당시 그의 정치적 행태와 역할에 집중되어왔다. 따라서 연산군의 형상이 후대에 전승되면서 어떤 편차를 보이는데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글에서는 연산군의 행적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1) 예로부터 난폭한 임금이 많았으나, 연산과 같이 심한 자는 아직 있지 않았다. 自古荒亂之主雖多, 未有如燕山之甚者也. 『중종실록』 1년(1506) 9월 2일, 2번째 기사. 자료의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및 한국고전번역원의 Web DB를 참고하였으며 이하 같다.

평가에 주목하기보다는 『연산군일기』를 통해 연산군의 형상이 규정되고 이후의 문헌에서 이러한 형상이 고착화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논의를 확대하여 관련 기록에 나타난 균열 양상에 주목하며, 후대의 인물들이 과거의 연산군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산군 관련 기록에 내재된 연산군 인식의 특징적 국면이 새롭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II. 『연산군일기』의 편찬과 연산군에 대한 인식의 형성

연산군의 형상과 인식은 기본적으로 『연산군일기』에 기초한다. 『연산군일기』는 중종(中宗) 4년(1509)에 편찬되었으며, 『일기(日記)』라고 칭해지지만 기존의 『실록(實錄)』과 비교하여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이나 체제는 동일하다. 하지만 『연산군일기』의 편찬과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는데, 무엇보다 『일기』를 편찬하기 위한 사초(史草)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연산군 당대의 사정과 관련이 깊다. 연산군은 춘추관에 명해서 자신과 관련된 『시정기(時政記)』를 모두 삭제하고 불태운 바 있다.²⁾ 또한 연산군대의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사초에서 발단되었던 만큼, 『일기』의 편찬과정에서 사관들이 사초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³⁾ 이에 중종이 사국(史局)의 일을 누설하는 자는 노예가 되도록 처벌하겠다고 전교(傳敎)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사초를 모아 『연산군일기』를 편찬할 수 있었다.⁴⁾

2) 또한 과오와 악이 후세에 전할 것을 염려하여 춘추관에 명해서, 『시정기』에 자신의 허물을 말한 것이 쓰여 있는 것이 있으면 모두 삭제하고 불태웠다. 又慮過惡傳後, 命春秋館, 其有涉言已過, 而書於『時政記』者, 盡削焚之. 『연산군일기』 6년(1500) 5월 5일, 3번째 기사.

3) 집에 간직하고 있는 사초를 일기청에 바치는 기일이 서울은 5월 그믐인데 이제 기일이 지났어도 바치지 않아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바르게 쓴 사람이, 사람들이 누설할까 두려워하여 무오년의 일로써 경계를 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家藏史草納廳日期, 京中則五月晦日, 而今過限不納, 故未得始事. 此必直筆者, 畏人漏洩, 以戊午之事爲戒故然耳. 『중종실록』 2년(1507) 6월 17일, 3번째 기사.

4) 일기청에서 아뢰기를, “이후로 사국의 일을 누설하는 자는 먼 변방 외딴 고을에 보내 종신토록 노예가 되게 하고, 자손은 금고하여 사면을 거처더라도 용서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日記廳啓曰: “今後漏洩史局事者, 極邊殘邑, 永屬爲奴, 子孫禁錮, 雖經赦勿原.” 從之. 『중종실록』 2년(1507) 6월 17일, 5번째 기사.

한편 『연산군일기』의 편찬과정에서 책임자를 의도적으로 교체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처음에는 김감(金勘)이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에 임명되었지만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고, 이후 신용개(申用溉)와 성희안(成希顔)이 차례로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산군과 관계가 있었던 인물들은 배제된 반면, 『연산군일기』를 끝까지 편찬한 성희안은 박원종(朴元宗)과 중종반정(中宗反正)을 모의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오른 인물이다.

편찬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특징은 『연산군일기』에서 연산군의 형상과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때문에 『연산군일기』에서 연산군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⁵⁾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왜곡현상이 실증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왜곡이 의도적으로 진행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연산군일기』의 몇 가지 단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실록』과 비교하여 형식과 분량 등에 큰 차이가 없는 『연산군일기』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 김범의 논의는 충분히 타당하다.⁶⁾

다만 변원림에 의해 논의된 것처럼, 『연산군일기』에는 사초에 근거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거나 그 자체로 민간의 이야기를 수용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⁷⁾ 이러한 부분은 대체로 연산군을 부정적으로 드러내려 했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때문에 『연산군일기』

5) 『연산군일기』의 사실성에 대한 의심은 신동준과 변원림에 의하여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신동준은 “『연산군일기』는 연산군에 대한 악의적인 묘사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산군과 관련한 『중종실록』의 기록 역시 별반 차이가 없다. [...] 승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변원림은 “『연산군일기』는 연산군을 왕위에서 몰아낸 자들에 의해 편찬되어, 더욱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하였다. 신동준, 『연산군을 위한 변명』(지식산업사, 2003), 15쪽; 변원림, 『연산군 그 허상과 실상』(일지사, 2008), 12쪽.

6) 김범은 “(『연산군일기』의) 형식과 분량이 다른 『실록』과 거의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그 신빙성을 의심하는 태도와 서술은 오히려 더욱 큰 오류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여, 『연산군일기』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그 내용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김범, 『연산군』(글항아리, 2010), 75쪽.

7) 변원림은 『연산군일기』와 문헌 기록에 나타난 연산군 형상의 부정적 면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변원림, 앞의 책, 11-288쪽.

와 문헌 기록에서 연산군을 형상화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반증 자료를 토대로 세심하게 접근하는 것은 후대의 연산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세조해장대왕께서 신무의 자질로 국가가 위외하고 못간신이 도사린 즈음을 당하여, 침착한 기지와 슬기로운 결단으로 화란을 평정시키시니 천명과 인심이 저절로 귀속되어, 성덕과 신공이 우뚝 백왕의 으뜸이었다. [...] 아! 인신이란 난리를 만들 뜻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불도의 죄가 이미 굴복하였으니, 죄우가 작해하듯이 마땅히 유신의 은혜에 갚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이 뜻을 납득할 줄 안다.⁸⁾

위의 인용문은 『연산군일기』에 실린 부분이지만, 동일한 내용이 허봉(許篈)의 『해동야언(海東野言)』에 기록되어 있다.⁹⁾ 내용은 「이세영자기(李世英自記)」로 연산군대에 벼슬한 이세영의 기록이다. 『연산군일기』에 실린 것이 민간의 문헌에 동일하게 실린 것이다.

『실록』의 편찬과정에서 민간의 기록을 활용하는 예는 후대에 『선조실록』의 편찬과정에서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眉巖日記)』나 이정형(李廷馨)의 『동각잡기(東閣雜記)』를 인용한 과정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¹⁰⁾ 따라서 임란(壬亂) 이후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여 『선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민간의 기록을 활용한 것처럼, 그 이전인 중종대에는 연산군이 훼손한 기록을 보충하기 위해 『연산군일기』를 편찬하면서 〈이세영자기〉를 활용한 것이다.

이처럼 『연산군일기』에 실린 내용이 다른 자료에 그대로 전제되어 있어 편찬과정에서 민간의 소문이나 사관의 주관적 생각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연산군일기』에서는 정상적으로 기록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순된 진술들을 찾아볼 수 있다.

8) 恭惟我世祖惠莊大王，以神武之資，當國家危疑群姦盤據之際，沈幾睿斷，戡定禍亂，天命人心，自有攸屬，聖德神功，卓冠百王。[...] 於戲人臣無將，既伏不道之罪，雷雨作解，宜霽惟新之恩，故茲教示，想宜知悉。『연산군일기』 4년(1498) 7월 27일, 1번째 기사; 『海東野言』 燕山君 「李世英自記」.

9) 변원림, 앞의 책, 15쪽.

10) 송재용, 「〈미암일기〉의 서지와 자료적 가치」, 『퇴계학연구』 12(퇴계학연구소, 1998), 137-139쪽.

- ① 왕이 이미 육선을 들었다. 신수군이 일찍이 근방의 강에서 생선을 구해 올렸는데, 외정에서는 알지 못한 것이다.¹¹⁾
- ② 왕이 그 이름을 쓴 단자를 상고하여 아무의 아내가 아무개라는 것을 잘 알아두었다가 익히 보고서, 마음에 맞는 자는 모두 간통하니, 바깥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자는 아내를 숨기고 병을 핑계하여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왕이 이를 알고는 속으로 넌지시 해칠 뜻을 가졌다.¹²⁾
- ③ 어느 날 밤 왕이 박씨와 함께 자다가 꿈에 이정(월산대군)을 보고는 땀겨 여겨 내관으로 하여금 한 길이나 되는 철장을 만들어 이정의 묘 광중에 꽂게 하였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¹³⁾

①의 내용에서 연산군은 성종(成宗)이 죽은 이후에 슬퍼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남모르게 생선을 먹었다고 한다. ②에서는 연산군이 다른 여자와 간통하려 하는데, 이를 방해한 남편을 해치려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③에서는 연산군이 박씨와 동침하다가 그녀의 남편인 이정을 꿈에서 보고, 이후 그의 묘에 철장을 꽂게 하자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은 모두 연산군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사실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의심스런 점들이 있다. 우선 ①의 경우 비밀로 하였기에 사관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연산군은 상중(喪中)에 고기를 먹은 부도덕한 인물이 된다.¹⁴⁾ 그리고 ②와 ③은 속마음과 꿈을 꾸 내용지만 남편이 있는 여자를 범하면서 간통한 여자의 남편을 질투하여 해치거나 무덤을 훼손하려 한 임금이 된다.

그렇다면 이는 당시 소문으로 떠돈 이야기이거나 사관의 생각이거나 혹은 다른 곳에 실린 기록을 활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연산군 당대에 이미 연산군과 관련된 소문들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기』를 편찬할 당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다고 하겠다.

11) 王已進肉膳。慎守勤嘗於近江，索鮮魚以進，外廷不知。『연산군일기』 1년(1495) 2월 14일, 3번째 기사.

12) 王案其書名單子，詳知某妻爲某也，熟視之，合於心者，不無私焉，外間之人，稍有知識者，則匿其妻，稱病不納，王知之，陰有中害之意。『연산군일기』 11년(1505) 8월 25일, 4번째 기사.

13) 王一夕，與朴氏同衾，夢見婷惡之，使內官作鐵杖丈餘，釘于婷之墳壙中，有聲如雷。『연산군일기』 12년(1506) 6월 9일, 3번째 기사.

14) 변원림, 앞의 책, 108-109쪽 참조.

- ① 연산군을 교동에 안치할 때 가시덤불로 주위를 둘러는데, 가시란 말이 우리말의 각시란 말과 비슷하며, 밀이란 뜻은 또 사람의 음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향간에 나도는 조롱과 해학들이면서도 그 속에는 세상을 비웃고 풍자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 한 시대의 일을 잘 묘사함으로써 실재하였던 사실을 여실히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다.¹⁵⁾
- ② 하루는 연산군이 기생에게 묻기를, “너 성세정을 보고 싶지 않느냐?” [...] 공의 아들 참관 성륜이 매년 세말에 봉급을 보냈는데, 그 기생 역시 종신토록 정조를 지키고 나이 팔십을 넘게 살았다. 늘 연산군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하였다.¹⁶⁾

우선 ①을 통해 연산군을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향간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②의 인용문은 연산군의 일을 항상 이야기하던 기녀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녀는 원래 성세정(成世貞)의 기녀였는데, 연산군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연산군이 반정에 의해 물러나자 궁궐에서 나와 다시 성세정에게 의탁한 인물이다. 이와 같이 연산군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인물들에 의해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민간에 퍼지게 되었고, 이것이 『연산군일기』의 편찬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당시의 소문들 모두가 『연산군일기』의 편찬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이야기는 당시 연산군에 대한 민간의 반응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던 사실을 단편적으로 전해준다.

중종이 반정하던 날에 그의 폐위 소식을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으니, 이는 또 계해년의 인심과도 다르네.¹⁷⁾

위의 기록에서는 연산군이 반정에 의해 폐위되자,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리고 기록의 내용에서와 같이

15) 其安置喬桐，圍以棘籬，荆棘之釋與妻字之釋方言相同，底字之義又就人身下言也。斯蓋皆出於鄙俚嘲諷之口，而中含譏諷，各存一時之事，而自不容掩其實。『龍泉談寂記』。

16) 一日主謂妓曰：“汝欲見成某乎?” [...] 公之胤參判倫，每以歲俸遺之，妓亦終身自守，年逾八十，常說燕山事甚詳。『長貧居士胡撰』。

17) 故中廟反正日，有聞而涕泣者，則又與癸亥人心有間矣。『宋子大全』(81) 書「答趙復亨(己酉十一月五日)」。 이 기록은 광해군과 연산군을 비교하여 광해군이 더욱 폐덕한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연산군 당시의 백성들의 반응을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에 이와 같은 소문이 구전이나 문헌으로 전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정 이후에 왕이 쫓겨났다고 해서 백성들이 슬퍼하던 상황이 당시에 실제로 벌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현재 『연산군일기』 및 다른 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연산군에 대한 공식적 기록과 민간의 이야기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연산군에 대한 부정적 기록들이 일반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연산군과 관련된 기록들의 경우,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후대로 갈수록 부연되면서 연산군을 부정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연산군이 폐위되기 이전에는 연산군과 관계없던 기록이 연산군의 폐위 이후에 다시 기록되면서 연산군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발적 사건이 중요한 사건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전승 과정의 특징이 드러난다.

- ① 우찬성 손순효가 술에 취해 나와 어탑 아래에 엎드리니, 임금이 내관을 시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이나고 물었다. 그러자 손순효가 말하기를, “신은 광명하고 정대한 말을 아뢰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하라” 하였다. 손순효가 즉시 어탑에 올라 한참 동안 계사하고는 얼굴을 들고 손을 저으니, 임금이 구부리고서 대답하였으나, 좌우에서는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또 이미 물러 내려와서도 자못 정신이 헛갈려 몸가짐을 잃었으므로, 임금이 내관에게 명하여 부축해 나가게 하였으나, 정승·승지 등이 또한 계사한 것이 무슨 일인가를 알지 못하였다.¹⁸⁾
- ② 성종 때에 물재 손순효는 연산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알고, 하루는 어탑으로 올라가 임금의 용상을 어루만지면서 청한 일이 있으므로, 대간이 그것을 죄 주자고 청하고 또 성종에게 몰래 아뢴 것이 무슨 일인가를 듣고자 하니, 성종은 말하기를, “내가 색을 좋아한다고 경계했을 뿐이다” 하고, 마침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¹⁹⁾
- ③ 연산군이 세자로 있을 때, 심히 법도가 없었으나, 여러 신하들은 모두 그것이 동심에서인 줄 알고 있었다. 손순효 공이 어느 날 취기가 오르자 곧장 어상에 올라가 손으로 만지며, “이 자리가 아깝습니다” 하였더니, 임금이

18) 右參贊孫舜孝醉酒，出伏御榻下，上使內官，問欲言何事。舜孝曰：“臣欲啓光明正大之言。”上曰：“言之。”舜孝卽陞御榻，良久啓事，仰面揮手，上俯而答之，左右未知爲某事。旣又退降，頗迷亂失儀，上命內官扶出，政丞·承旨等，亦啓事未知爲何事也。『성종실록』 21년 (1490) 8월 22일, 2번째 기사.

19) 成廟朝，孫勿齋舜孝，知燕山不克負荷，一日登御榻，有撫床之請，臺諫請罪，且欲開密啓何事，上曰：“戒子好色耳。”竟不言。『丙辰丁巳錄』.

말하기를, “내 또한 알고 있으나, 차마 폐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간관이 아뢰기를, “신하로서 어상에 오름은 이미 크게 불경한 것인데, 또 감히 귀에 대고 말을 하니, 이것은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순효를 옥에 가두어 형률대로 논죄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순효는 나를 아껴 나에게 술 끊기를 권한 것인데, 무슨 죄에 해당할꼬” 하였다.²⁰⁾

위의 인용문은 연산군 당대에 편찬된 『성종실록』과 후대의 문헌 기록에 실린 손순효(孫舜孝)와 관련된 기록들이다. ①에서는 손순효가 옥탑에 올라가 성종에게 말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술에 취해 몸가짐이 흐트러진 손순효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②의 『병진정사록(丙辰丁巳錄)』에서는 손순효와 성종 사이에 밀담이 오고 간 원인이 연산군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③의 『오산설림초고(五山說林草藁)』에서는 성종의 말을 가상으로 전하면서, 연산군이 세자 당시에 이미 왕의 자리를 계승하기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였고, 성종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이러한 기록의 변화는 연산군이 세자 시절부터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특정한 사건을 변환시킨 것이다.²¹⁾

이와 같이 연산군 관련 기록은 연산군의 폐위 이후에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연산군이 왕위에 있으면서, 폭정과 음행을 행한 것은 기본적으로 『연산군일기』를 통해 상세히 드러난다.²²⁾ 그리고 이후의 연산군 관련 기록도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재현하며 부연한 것이다.

다만 『연산군일기』가 『실록』의 관리 규정에 따라 사사로이 열람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연산군일기』는 편찬된 이후 변화되지 않았지만, 민간의 문집이나 패설·야담 등의 문헌 기록에 실린 연산군 관련 기록은 보다 수월하게 변이되면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에 나타난 연산군의 형상은 『연산군일기』와 연관되면서도 후대의 시각이

20) 燕山在東宮，多無度，群臣咸知其有童心，孫公舜孝一日乘醉，直上御床，以手撫之曰：“此座可惜。”上曰：“吾亦知之，不忍廢也。”諫官奏曰：“人臣上御床，已大不敬，又敢附耳語，是無法，請下舜孝獄，論如律。”上曰：“舜孝愛我，戒我以斷酒，當何罪也。”『五山說林草藁』。

21) 변원림, 앞의 책, 65-57쪽 참조.

22) 김범, 앞의 책, 252-315쪽 참조.

드러나게 된다. 이는 문헌을 통해 전개되는 연산군의 형상에 관심을 가지며 접근하는 것이 현재의 연산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폭군으로서 연산군 형상의 확산

1. 음행과 폭정의 강조

폭군으로서 연산군 형상이 반복되면서, 연산군의 음행과 폭정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몇 가지 기록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에는 “갑자년 이후에 창기로서 얼굴이 예쁜 자를 대궐 안으로 뽑아 들이니 처음에는 백 명 정도였던 것이 나중에는 만 명이나 되었다”²³⁾라고 하여, 만 명이나 되는 예쁜 여자를 연산군이 뽑아 들었다고 강조한다. 연산군의 음행이 연산군 10년(1504)부터 본격화되었다는 점과 1506년에 반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만 명이라는 숫자는 연산군이 사냥을 좋아하기에 매사냥꾼을 만 명이나 두었다²⁴⁾고 한 기록과 같이 연산군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의도적 표현이다. 그렇지만 이를 토대로 연산군의 행동에 음행을 강조하던 경향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산군의 형상은 폭정이 부각되면서 신하를 멋대로 죽이는 인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린인(鄭麟仁)에 대하여 “특별히 제주목사를 제수하였다. 얼마 안 되어 밭이 희고 이마가 흰 말을 요구하여 얻지 못하였더니, 드디어 명을 거역한다 하고 베어 죽였다”²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정린인은 제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인해 제주목사에 부임하지 않았었다.²⁶⁾ 따라서 정린인이 제주목사로서 공물을 바치지

23) 甲子以後，娼妓有姿色者，選入于內，始百數，終萬計。『燃藜室記述』(6)「燕山朝故事本末」.

24) 따로 응사 만여 명을 두어 항상 사냥하는 데 따라 다니게 하였다. 別設鷹師萬餘，常隨畋獵。『燃藜室記述』(6)「燕山朝故事本末」.

25) 特授濟州牧使。未幾索白足的類馬不得，遂以逆命誅之。『涪溪記聞』.

26) 정린인의 죄명은 “특별히 제주목사를 제수하였는데, 그곳이 험하고 먼 것을 꺼려 병을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위의 기록에 형상화된 연산군은 탐욕스럽게 공물을 원하고 그 공물을 바치지 못한 신하는 죽인 임금이 된다.

이와 같이 연산군의 행위에 대한 소문들이 증척되면서 연산군의 형상은 더욱더 폭군으로 후대에 각인된다. 따라서 연산군 당대에는 연산군의 폭정이나 음행과 관계가 없었던 기록들도 폭정과 음행에 따른 결과로 바뀌게 된다.

폐조 때 심순문의 죽음은 오로지 우리러본 것에 연유한 것입니다. 【심순문이 폐주를 마주 보고 어복이 너무 협소하다고 간하자, 폐주가 “이 사람은 항시 엿보는 마음이 있다” 하고 죽였다.】²⁷⁾

위의 『중종실록』을 통해 심순문(沈順門)은 연산군에 의해 처형당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순문은 대간으로서, 연산군에게 간언하였다가 미움을 받은 것이 죽게 된 유일한 원인이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연산군과 대간의 관계가 대립적이었던 상황만을 알려준다. 하지만 이후의 기록에서는 심순문의 죽음을 연산군의 음행 및 폭정과 관련짓고 있다.

그때 강혼·심순문이 사인으로 있으면서 두 사람이 모두 눈여겨둔 기생이 있었는데, 선생은 두 사람에게 경고하기를, “기생을 멀리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라” 하니, 강혼은 곧 버렸으나 심순문은 듣지 않았다. 그 뒤 두 기생이 뿔하여 궁중으로 들어가 연산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으므로, 심순문은 마침내 억울하게 죽었다.²⁸⁾

위의 인용문을 정리하면 심순문이 가까이한 기생이 연산군과 관계를 맺었고, 이후 연산군이 그 기생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칭탁하고 사피했으며, 응제시를 한 수 더 지어 혼자만이 여러 사람과 다르게 하고, 또 내농포에 공상하는 데 쓰는 발을 주어 짓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계달하여 무례한 죄다.” 鄭麟仁罪名曰：“特除濟州牧使，憚其險遠，托病辭避及應製詩，加製一首，獨異於衆與內農圃供上所需田，給耕未便事啓達，無禮罪。” 『연산군일기』 10년(1504) 5월 25일, 5번째 기사.

27) 廢朝時沈順門之死，專由仰視。【順門對廢主，諫御服過狹，廢主曰：“常時有窺覘之心。”因而殺之。】 『중종실록』 13년(1518) 1월 4일, 2번째 기사.

28) 其時姜渾沈順門爲舍人，皆有所盼之妓，先生戒二公曰：“亟遠之，毋貽後悔。”姜卽棄之，沈不從。其後二妓選入宮中，極被寵幸，沈竟死非法。 『丙辰丁巳錄』.

기생을 버리지 못한 심순문은 결국 억울하게 죽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의 문맥을 통해 연산군은 남의 기생을 취한 음란한 왕이면서, 동시에 그 기생과 인연을 맺었다는 이유로 심순문을 죽인 포악한 왕이 된다. 이를 통해 『병신정사록』에서 연산군의 형상은 발생하지 않은 일을 근거로 폭군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연산군의 음행과 폭정이 중첩된 문헌은 이후에도 빈번히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이 아닌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생원 황윤헌의 첩이 얼굴이 예쁘고 가야금을 잘 타니 구수영이 빼앗아 폐주에게 바쳤다. 폐주가 매우 사랑했으나 그는 성질이 사납고 괴팍하여 말하고 웃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폐주는 그전 남편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고 드디어 황윤헌을 죽였다.²⁹⁾

위의 내용은 연산군이 황윤헌(黃允獻)의 첩을 강제로 취하였다는 것이다. 앞의 심순문과 같이 연산군은 황윤헌도 죽이는데 황윤헌의 첩이 황윤헌을 그리워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황윤헌의 기록을 살펴보면, 황윤헌은 연산군대에 죽지 않고 중종대에 그의 행실이 경박하다 하여 대간들로부터 탄핵을 받은 인물이다.³⁰⁾

이러한 점에서 황윤헌에 대한 기록도 심순문의 경우와 같이 연산군의 음행과 폭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덧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기록이 서로 유사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당대에 유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연산군은 음란하면서도 사람 죽이기를 멋대로 하는 폭군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29) 生員黃允獻，妾有姿色，善伽伽琴，具壽永奪而納諸主。主甚寵之，其性狠復，不喜言笑，主以爲思戀舊夫，遂殺允獻。『燃藜室記述』(6) 燕山朝故事本末 「黃兎記事」.

30) 또 아뢰기를, “황윤헌은 조행이 없는 경박한 사람입니다. 전일에 살림하던 첩은 곧 폐주 때 궁중에 들어가 숙원의 봉작까지 받으며 폐단 부린 사람인데, 윤헌이 남몰래 간음하였으니 사대부로서 어찌 차마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마땅히 사관에 끼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又啓: “黃允獻，無行輕薄之人。前日所畜之妾，卽廢主時入宮，至封淑媛作弊者，而允獻潛奸，士大夫豈忍爲此? 當不齒仕版。” 『중종실록』 11년(1516) 10월 21일, 5번째 기사.

2. 부정적 책임의 전가

연산군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가 왕위에 있던 시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사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 몇몇 신하를 잔인하게 죽였고, 많은 신하들을 변방으로 귀양 보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정치적 평가는 부정적으로 일반화되었는데, 이러한 평가가 확산되어 실제로 연산군과 관계없는 문제조차도 연산군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다만 공안은 연산군 때 정한 것이지, 조종의 법이 아닙니다. 신이 개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³¹⁾

여기서 공안(貢案)은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물목(物目)이다. 위의 인용문은 연산군이 폭군으로서 백성들을 수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것도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연산군대에 비로소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안은 연산군대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선초기부터 있었던 제도이며 당시에도 백성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³²⁾ 따라서 공안이 연산군대에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연산군의 백성에 대한 학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기록이다.

이와 같이 연산군대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닌데도 연산군대의 일로 한정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복(俯伏)에 대한 후대의 기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조광조가 중종에게 고하기를, “우리나라는 임금과 신하의 구분이 확연하여, 근래 누차 강관에게 하교해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평소처럼 앉으라고 하였는데도 신하들이 상의 뜻이 진실로 그러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전 습속(부복)을 대번에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만약 성종조였다면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폐조 때 심순문이 우러러 뵈었다가 죄를 입는 등 너무 위엄을 부리자 신하들이 놀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부복하는 것 또한 폐조의

31) 至於貢案, 是燕山所定, 非祖宗法也. 臣非好更張, 欲救民瘼也. 『栗谷全書』 (35) 「行狀」.

32) 백성들이 처음 정한 공안의 수량에 의하여 공물을 수송하여 바치는 까닭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오니. 人民, 依初定貢案之數, 輸納貢物, 不堪其苦. 『세종실록』 21년(1439) 6월 22일, 1번째 기사.

남은 습속입니다” 하였다.³³⁾

위의 기록에서 조광조(趙光祖)는 부복하는 것이 연산군대에 남아 있는 습속이라고 한다. 그리고 송시열(宋時烈)이 말했던 것처럼 부복은 신하가 임금을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며, 신하들이 편하게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임금의 바른 모습이다.³⁴⁾ 그런데 『성종실록』에 의하면, 신하들이 성종에게 부복하고 있으며 세자에게도 부복하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전례라고 하였다.³⁵⁾

그렇다면 위의 기록은 연산군이 신하들과 대립하던 관계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성종대에도 시행되었던 부복이지만 연산군대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종과 연산군의 같은 행동임에도 성종은 성군으로 그려지지만 연산군은 폭군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특히 부복의 유래를 설명하는 인물로 조광조를 내세우고 있어, 이 기록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³⁶⁾

한편 후대에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사항을 연산군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이외에 불교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던 원각사(圓覺寺)를 허문 일도 연산군이 했다고 전하는 것은 그 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광묘(세조)가 서울에 원각사를 창건하고 서 있는 불상을 만들었다. 왜의 사신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무릇 불상은 모두 앉아 있는데, 이 불상은 서 있다. 이는 지나가는 모습이니, 이 절이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때 이 절을 헐고 불상을 밖으로 내쳤다.³⁷⁾

33) 靜菴告于中宗曰：“我國君臣之分隔絕，邇來屢教講官，平氣以坐，而羣臣不知上意之誠否，故未能狎變舊習，以此觀之，習俗之難變固矣。[···] 若成宗朝則豈有如此事乎？廢朝，沈順門以仰視被罪，積威之極，羣臣震懼。今之俯伏，亦廢朝之餘習也。” 『林下筆記』 (18) 文獻指掌編 「講官平坐」.

34) 이 부복하는 예가 극진히 공경하는 도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종조에서는 으레 편히 앉게 하였습니다. 且此俯伏之禮，實非至敬之道，故在祖宗朝，例賜便坐。 『宋子大全』 (207) 行狀 「重峯趙先生行狀」.

35) 세자가 입시할 적에 조종 때의 전례에 의하여, 서연관 1명과 중관 1명이 전내에 따라 들어가서 뒤에 부복하고, 世子入侍時，依祖宗朝例，書筵官一人·中官一人隨入殿內，俯伏於後。 『성종실록』 24년(1493) 3월 9일, 1번째 기사.

36) 신하가 임금에게 부복하는 것에 대하여 변원림은 연산군대에 시행된 것이라 하였고, 김범은 성종대에 정희왕후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변원림, 앞의 책, 106쪽; 김범, 앞의 책, 345쪽.

37) 光廟京城創圓覺寺，塑立佛。倭使見之曰：“凡佛皆坐而此佛立高，是行之象也。寺其不久乎？”

앞의 인용문은 원각사가 허물어진 유래를 설명하는 글이다. 세조에 의해 서울에서 가장 큰 절로 창건되었지만, 일찍부터 연산군이 이를 허물 것이라 예언되었고 이후 예언이 실행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기록은 예언의 신이함과 원각사에 대한 후일담을 드러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각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산군은 불교를 배척한 폭군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이야기가 성립하게 된다.

위의 기록을 『연산군일기』와 비교해본다면, 연산군은 불교를 사교(邪敎)로 보고 불교가 서울 한복판에 성행하는 것을 문제로 삼았었다. 이는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개인적 폭력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조선사회의 성리학 보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실 연산군의 불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그가 왕위에 있던 시기에 행한 업적 가운데 후대에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몇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이다.³⁸⁾

그래서 연산군은 원각사에 공자의 사당을 세우고 성균관을 옮기려 하였으며, 불상은 세조가 만든 것이기에 예조에 맡겨놓는다.³⁹⁾ 하지만 신하들이 사도(邪道)가 있던 곳이라 하여 성균관 옮기는 것을 반대하자 여기에 장악원(掌樂院)을 세운다.⁴⁰⁾ 때문에 연산군대에는 여전히 불상과 원각사 건물이 남아 있었으며, 중종대에 이를 한성부로 활용하였다.⁴¹⁾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에서 실제로 원각사를 허문 인물은 중종으로 알려져 있다. 중종은 1512년에 원각사를 완전히 부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절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허물고 남은 재목마저도 백성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⁴²⁾ 이로 인해 중종대에 원각사는 사라지게 되었다.

燕山時，毀是寺，黜佛於外。『林下筆記』(19) 文獻指掌編 「圓覺寺」.

38) 임금 역시 박원종·유순정에게 전교하기를, “도성 안의 사찰은 조종조에서 창건한 것이다. 그런데 대간이, 폐주 때의 일 중에 이단을 숭상하지 않는 것은 취할 만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일찍이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명했던 것이다. ……” 上亦傳于朴元宗·柳順汀曰: “都中寺刹, 自祖宗朝創建. 臺諫言廢主時事, 惟不崇異端爲可取, 故會命勿許復立矣.” 『중종실록』 2년(1507) 1월 7일, 2번째 기사.

39) 원각사의 부처는 내어놓고 공자의 신위를 거기에 옮겨 모시고, […] 원각사의 부처는 세조께서 만드신 것이니 예조가 맡아 처리하여 옮겨두게 하고, 성균관을 원각사에 옮겨 설치하라. 黜去圓覺寺佛, 移安孔子神位於此, […] 圓覺寺之佛, 世祖所成, 令禮曹區處移置, 成均館移設于圓覺寺. 『연산군일기』 10년(1504) 7월 10일, 5번째 기사.

40) 장악원을 원각사에 옮기었다. 移掌樂院于圓覺寺. 『연산군일기』 11년(1505) 2월 21일, 1번째 기사.

41) 한성부를 정묘년에 원각사로 옮겼다. 漢城府丁卯年移圓覺寺. 『중종실록』 5년(1510) 1월 12일, 2번째 기사.

42) 이병희, 「조선전기 원각사의 조영과 운영」, 『문화사학』 34(한국문화사학회, 2010), 111-145쪽.

따라서 연산군이 원각사를 폐지한 것은 조선의 국교인 성리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다. 또한 종종이 원각사를 허문 것도 불교가 더 이상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불교계에서 본다면, 연산군과 종종 모두 불교와 대립적 관계를 유지한 왕이 된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원각사를 허문 것에 대해 연산군 혼자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그만큼 연산군이 폭군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

한편 연산군이 하지 않은 행위이지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산군에게 돌리는 것은 백성들이 언문 쓰는 것을 금지했다는 기록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연산군이 마음대로 음탕과 포학을 자행할 때에 어떤 사람이 언문으로 연산군의 죄악을 거리에 방을 붙였다. 어떤 사람이 고하니, 연산군이 그것은 당시에 죄를 입은 자의 친당들의 소행이라고 지목하여 귀양 간 사람들을 다 체포하여 고문이 혹독하였고, 또 서울과 시골에 언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금지하였다.⁴³⁾

위의 인용문에서 연산군이 언문 사용을 금지시킨 것은 연산군의 악행을 드러낸 글들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사건을 확대하여 자신과 대립하다 귀양갔던 인물들을 다시 잡아 올려 혹독하게 고문했다고 한다.

그런데 연산군이 언문을 금지한 것은 거리에 방이 붙어서가 아니라, 언문으로 된 익명서가 투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익명서에는 연산군의 잘못이 적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산군을 비방하던 인물들의 명단과 비방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⁴⁴⁾ 따라서 연산군은 이 익명서에 따라 자신을 비방하던 인물들을 잡아 벌주게 된다. 때문에 익명서는 연산군의 폭정에

43) 燕山方肆淫虐，有人以諺文書其惡，貼于街。或告之，燕山指爲其時被罪者親黨所爲，盡逮捕，竄配之人，拷掠慘酷，且禁中外，毋得詩學習諺文。『東閣雜記』(下)。

44) 개금·덕금·고온지 등이 함께 말하기를 “申氏が 아니었던들 금년에 사람들의 억울함을 지음이 이토록 극도에 이르렀는가. 어찌하면 신씨의 아버지·할아버지·아들·손자를 아울러 모조리 없애어 씨를 말릴 수 있을까? 우리 임금의 신하를 많이 죽여서 거둬 때에는 반드시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므로 사족의 아낙을 모조리 쫓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제 집의 아내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어느 때에나 이런 대를 바꿀까?” 하였으니, 이런 계집은 모름지기 징계하여야 한다. 介今·德今·古溫知等相與言曰：“若非申氏，今年作人之冤閹，至此極耶？安得并申氏父祖子孫，而盡滅無種耶？主上多殺臣下，行幸時必有愧恥之心，故盡逐士族之妻，無乃因此，欲爲自家之妻耶？何時革此代耶？”如此之女須懲之。『연산군일기』 10년(1504) 7월 19일, 4번째 기사.

대한 내용이 적혀 있긴 하였지만, 이는 연산군을 비방하던 인물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 간접적으로 적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산군은 언문으로 투서한 자들이 누구인지 밝히도록 하면서, 이후 언문으로 투서하지 못하도록 언문 사용을 금지한다.⁴⁵⁾ 그리고 범인을 잡을 때 글씨를 대조할 수 있도록 신하와 백성들 가운데 언문을 쓰는 사람들의 필적을 모으기도 했다.⁴⁶⁾ 그러므로 길거리에 실제로 연산군의 폭정을 드러내는 익명서를 직접 붙이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폭정이 드러날까 하여 연산군이 언문을 금지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⁴⁷⁾ 그리고 연산군 대에 언문 사용이 계속 금지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일이 있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연산군 10년과 11년에 연산군이 다시 언문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⁴⁸⁾

이와 같이 연산군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상황은 폭군으로서 연산군의 형상이 전형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정과 음행만을 일삼는 폭군에서 신하에 대한 폭압, 불교와의 대립, 언문 사용 금지 등의 정치·종교·일상에서 전방위적으로 그에 대한 부정적 형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산군의 폭군으로서의 모습은 다른 폭군들과 비교하여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요컨대 연산군은 음행이나 폭정을 행한 것에서 그에 대한 인물의 형상화가 비롯되었지만, 이후에는 폭군의 요건을 두루 갖춘 인물로 인식

45) 언문을 쓰는 자는 기뢰제서울로, 알고도 고하지 않는 자는 제서유위율로 논란하고, 조사의 집에 있는 언문으로 구결단 책은 다 불사르되, 한어를 언문으로 번역한 따위는 금지하지 말라. 諺文行用者, 以兼毀制書律, 知而不告者, 以制書有違論斷, 朝士家所藏諺文口訣書冊皆焚之, 如翻譯漢語諺文之類勿禁. 『연산군일기』 10년(1504) 7월 22일, 7번째 기사.

46) 전교하기를, “경외의 언문 및 한자를 아는 자로 하여금 각각 한자·언문 4통을 쓰게 하여 책을 만들어서, 그 하나는 의정부에, 하나는 사헌부에, 하나는 승정원에 두고, 하나는 대내에 들어서 뒷날의 상고에 갖추라” 하였다. 傳曰: “令京外解諺文及漢字者, 各書漢·諺四通成冊, 其一藏于議政府, 一藏于司憲府, 一藏于承政院, 一入大內, 以憑後考.” 『연산군일기』 10년(1504) 7월 25일, 3번째 기사.

47) 연산군이 언문 사용을 직접 금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은 변원림에 의해 논의된 바 있어 참고하였다. 변원림, 앞의 책, 221-222쪽.

48) 병조정랑 조계형을 명하여 언문으로 역서를 번역하도록 하였다. 命兵曹正郎曹繼衡以諺文, 翻譯曆書. 『연산군일기』 10년(1504) 12월 10일, 3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번에 죽은 궁인의 제문은 언문으로 번역하여 의녀를 시켜 읽게 하라.” 傳曰: “今卒宮人祭文, 以諺文翻譯, 令醫女讀之.” 『연산군일기』 11년(1505) 9월 15일, 3번째 기사.

되었다. 때문에 연산군이 폭군이라는 점에 대한 더 이상의 이견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IV. 연산군 형상의 전형화와 변이

1. 중국 폭군과의 비교 및 전형화

폭군으로서 연산군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었고, 그 결과 연산군의 형상은 폭정과 음행에 대한 사실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폭군의 전형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연산군은 과거 중국의 폭군과 같은 반열에서 비교되기 시작한다. 연산군 이전의 폭군들이 행한 부정적 모습에 연산군을 대입하여, 연산군이 바로 이전의 폭군과 같거나 그보다 더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희재(任熙載)와 관련된 기록에서는 연산군과 진시황을 비교한다. 특히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연산군의 축성사업과 연계시켜 진시황처럼 무리한 토목공사를 행한 폭군으로 형상화한다.⁴⁹⁾

순을 조로 하고, 요를 종으로 하면 자연히 태평시대 되는데, 진시황은 무슨 일로 창생을 괴롭혔는가. 담장 안에서 화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되놈을 막으려고 만리장성 쌓았어라.⁵⁰⁾

위의 인용문은 임희재가 병풍에 적었다는 시로, 이 시를 본 연산군에 의하여 임희재가 화를 당하였다고 한다.⁵¹⁾ 더욱이 후대에 지어진 그의 묘갈명에는 시를 적은 것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의령에 유배되어

49) 변원립, 앞의 책, 95쪽.

50) 祖舜宗堯自太平，秦皇何事苦蒼生，不知禍起蕭牆內，虛築防胡萬里城。『海東野言』(2).

51) 연산군이 하루는 창졸히 임사홍의 집에 와서 그 병풍을 보고 “누가 저 글을 썼느냐”고 물었다. 임사홍이 사실대로 대답하니, 연산군이 노색을 띠며 이르기를, “경의 아들은 불초하다. 내가 죽이려고 하니,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임사홍이 꿇어앉아 대답하기를, “저의 아들은 원래 성품과 행실이 불순한 것이 과연 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신이 일찍이 아뢰고자 하였으나 아직 그렇게 못하였나이다” 하므로, 드디어 화를 당하였다. 燕山一日猝幸士弘家，見屏間之曰：“誰所書也。”士弘對以實，燕山有怒色曰：“卿子不肖人也。”我欲殺之，於卿意何如，士弘即跪對曰：“此子性行不順，果如上教，臣曾欲啓之而未果。”遂被禍。『海東野言』(2).

마침내 죽었다고 되어 있다.⁵²⁾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는 당(唐)의 호증(胡曾)이 지은 것으로, 진시황의 폭정과 함께 특히 만리장성을 쌓은 것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위의 시를 통해 연산군의 폭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연산군의 축성사업에서 관련성을 찾아야 한다.

연산군의 장성 축성은 6년에 평안도에 장성을 쌓자는 논의에서 비롯된다.⁵³⁾ 그리고 실제로 7년에 이산(理山) 지역에서부터 장성 쌓기를 시작한다.⁵⁴⁾ 그러나 장성의 축성과정에서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던 듯하며, 이에 대한 문제를 조정에서 논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장성 축성은 조선초기부터 있어왔던 일이며, 연산군의 장성 축성도 외적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본다면 위의 인용문은 매우 의도적으로 연산군과 진시황을 비교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임희재가 시를 적었다는 부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임희재는 임사홍(任士洪)의 아들이지만 임사홍이 연산군의 심복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 것과 상반된 행보를 펼쳤다. 따라서 연산군의 폭정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임희재를 등장시킨 것은 임사홍의 아들조차 연산군의 폭정에 반대했다는 정황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임희재가 위의 시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기록은 그의 생애와 부합되지 않는다. 임희재는 연산군 4년에 발생한 무오사화에서 김종직(金宗直)의 문도(門徒)라 하여 곤장 100대를 맞고 3천 리 밖으로 유배된 인물이다. 그리고 연산군 5년에 방면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후 연산군 10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능지처참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연산군대에 축성사업이 본격화된 시점을 고려한다면 무오사화로 인해를 당한 임희재의 생애와 위의 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52) 於是杖流公于宜寧，竟卒而葬焉。『巖棲集』(30) 墓碣銘「勿庵任公墓碣銘」.

53) 국가에서 평안도에 장성을 쌓고자 한다 하는데 이것은 매우 큰 역사이니 경솔히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조종 때 어찌 깊은 생각과 원대한 계획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쌓지 않았겠습니까. 원컨대 참작하여 하소서. 國家欲築長城於平安道，此甚大役，不可輕舉，在祖宗朝豈不深惟遠謀，而迄今不築乎？願斟酌爲之。『연산군일기』 6년(1500) 6월 25일, 1번째 기사.

54) 전교하기를 “한때의 폐단으로 인하여 만전의 계획을 폐지할 수 없으니, 금년 가을에 먼저 이산(평안북도 초산 지역의 옛 지명)의 장성을 쌓도록 하라.” 傳曰：“不可以一時之弊，廢萬全之策，今秋可先築理山長城。”『연산군일기』 7년(1501) 5월 25일, 3번째 기사.

그가 갑자사화에서 능지처참을 당했기에 묘갈명의 내용과도 다르다. 이처럼 위의 시는 임희재 및 연산군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연산군을 진시황과 같은 폭군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

한편 연산군을 한(漢)나라 강도왕(江都王) 건(建)과 관련시키는 과정도 연산군을 이전의 폭군과 같은 전형적 인물로 형상화하기 위해 나온 결과이다. 강도왕 건은 중국의 폭군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음행을 저지른 인물로 사람과 짐승을 교접시키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패륜적이며 정상적이지 않은 음란한 행동을 했던 중국을 대표하는 폭군 가운데 한 명이다. 그리고 연산군은 강도왕 건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연산군이 임금으로 있을 때에 교외의 목책을 설치하여 암말 수백 필을 목책 안에 기르고 또 수말 수백 필을 방목하여 그 교접하는 것을 구경하니, 못말들이 서로 차고 물어뜯으며 싸우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진동한 일과 같았다. 『서경』에 “어지러운 자와 도를 같이하면 멸망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연산군의 일은 한 나라 강도왕 건의 광패한 일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 비록 망하지 않으려 하나 어찌 되겠는가? 이 일은 역사에 누락되었으므로 여기에 적어둔다.⁵⁵⁾

여기에서는 연산군이 동물의 교접을 즐겨 보았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중국의 폭군인 강도왕의 음란한 모습과 비교하여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비교의 근거가 사실이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다음의 『연산군일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근일에 자주 내정에서 명하여 당나귀 및 망아지를 들여다보신다 하니, 신들이 듣기로는, 임금의 한 마음을 침노하는 것이 많아서, 개·말로도 하고 장기·바둑으로도 하고 글씨·그림으로도 하는데, 그 좋아하고 숭상함이 비록 다르나 뜻을 상실케 하기에는 매한가지이오니, 원하옵건대, 성학에 뜻을 독실이 하셔서 개와 말을 좋아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다만 한때 귀여워한 것이다.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였다. 【사신은 평한다. “왕이 비밀리 암수 말을 후원으로 끌어들이게 하여 교접을 구경한 것이다.”】⁵⁶⁾

55) 我朝燕山君之末廢，設木柵於郊，置雌馬數百頭於柵內，又放特馬數百，觀其尾交，群馬蹄啣鬪鬧聲，振山谷。書曰：“與亂同事，罔不亡。”即與漢建狂昏差等耳，雖欲不喪得乎？此事史筆所漏，故錄之。『星湖僊說』(11) 人事門「江都王建」。

위의 인용문은 연산군이 후원에 나귀와 망아지를 들여놓고 구경했다는 『연산군일기』의 기록이다. 이 과정에서 승정원의 관원들은 연산군에게 동물을 좋아하는 것은 바둑과 같은 잡기에 빠져 성심을 잃게 하는 것과 같다고 간언한다. 이에 대해 연산군은 개와 말을 좋아하지 않겠다고 승정원의 간언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사신은 평에서 연산군의 행동이 후원에서 말이 교접하는 것을 몰래 즐겨 보던 비정상적인 모습이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신의 평은 앞의 승정원에서 간한 내용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연산군에 대한 승정원의 간언은 동물을 좋아하는 것이 잡기에 빠진 행동이라 하는 점에 국한되어 있다. 만약 연산군의 비정상적인 음행이 문제였다면 승정원은 인용문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더욱 강한 어조를 사용했을 것이다. 연산군도 개와 동물을 귀여워하지 않겠다고만 했을 뿐, 동물의 교접을 직접 보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연산군일기』에서 사신은 연산군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보지 않고 역사 지식을 떠올려 악의적으로 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산군의 폐륜적 음행이 주로 연산군 10년 이후에 진행된 것을 고려한다면, 이 기록은 연산군 2년의 기록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산군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당시에 자못 슬기롭고 총명한 임금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⁵⁷⁾ 따라서 위의 기록은 연산군이 재위 초기부터 음란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편찬과정에서 사신의 평이 덧붙여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이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익(李瀾)이 연산군을 강도왕 건과 같은 음행을 저지른 인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산군이 동물을 좋아했던 궁궐의 내정은 어느새 교외의 목책 안으로 장소가 바뀐다. 몇 마리의 동물이 수많은 말로 바뀌고, 이들의 소리는 골짜기를 울릴 정도라고 서술하였다. 동물을 좋아해 성심을 잃었던 왕에서, 강도왕

56) 承政院啓: “近日數於內庭命入驢子及兒馬觀之, 臣等聞, 人主一心攻之者衆, 或以狗馬, 或以博弈, 或以書畫, 其好尚雖殊, 至於喪志, 則一也. 伏願篤志聖學, 勿以犬馬爲好.” 傳曰: “特一時之玩耳, 予不復爲.” 【史臣曰: “王密令取雌雄馬入後苑, 觀其相交.”】 『연산군일기』 2년(1496) 6월 1일, 1번째 기사.

57) (연산군이) 왕위에 처음 올랐을 때는 자못 슬기롭고 총명한 임금으로 일컬어졌었다. 初, 頗以英明稱之. 『燃藜室記述』 (6) 燕山朝故事本末 「鵝城雜記」.

건에 못지않은 음행을 저지른 왕으로 연산군의 형상이 바뀌게 된 것이다.

따라서 후대에 연산군은 강압적인 토목 공사를 행한 진시황과 같은 폭군이며 패륜적 음행을 저지른 강도왕 건과 비견되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폭군들이 늘 후대의 임금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처럼, 연산군도 폭군이면서 후대의 임금이 경계해야 할 인물로 각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상대 인물에 대한 지감의 강조

연산군에 대한 폭군으로서의 전형성이 확고해지면서, 연산군의 형상은 폭군이면서 후대의 임금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대상으로 타자화된다. 따라서 연산군과 관련된 인물들의 기록도 연산군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연산군이 얼마큼 폭군인가라는 점보다 이미 폭군인 연산군과 관계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유지했는가 관심이 떠오른 것이다. 때문에 김종직(金宗直)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연산군이 새로 왕위에 오르니 조정과 민간에서 모두 영명한 임금이라 일컬었으나 김종직은 늙음 이유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갔다. 동향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지금 임금이 영명한데 선생은 어찌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왔습니까?” 하였다. 종직이 “새 임금의 눈동자를 보니 나처럼 늙은 신하는 목숨을 보전하면 다행이지 싶소” 하였다. 얼마 안 가서 무오·갑자년의 화가 일어나니 사람들은 모두 그가 미리 안 것을 탄복하였다.⁵⁸⁾

김종직은 성종 23년에 죽었으므로, 위의 기록은 사실이 아니다.⁵⁹⁾ 하지만 여기에서 김종직은 연산군이 폭군이 될 것임을 알아보고 스스로 물러났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을 통해 강조된 것은 폭군인 연산군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인물이 김종직이라는 그의 지감(知鑑)이다. 폭군인 연산군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58) 燕山新立，朝野皆稱英主，而金宗直以老辭位，還鄉。鄉人問曰：“今王英明，先生何辭位而來？”宗直曰：“觀新主眼睛，如吾老臣得保首領幸矣。”未幾，有戊戌甲子之禍，人皆服其先見。『燃藜室記述』(6) 燕山朝故事本末 「逐睡篇」。

59) 변원립, 앞의 책, 68쪽.

해당 인물을 높게 평가하는 효과를 창출한 것이다.

연산군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에 대한 기록은 후대로 가면서 이러한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정약용(丁若鏞)도 집안의 인물인 정수강(丁壽崗)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연산군이 황음한 데 빠진 때를 당하여서는 눈 뜬 장님을 칭탁하여 발길을 끊고 두문불출하고 거울을 쓰다듬고 침상을 더듬으며 세상을 마쳤으므로, 비록 사옥과 사회가 일어나 진신들이 피를 흘렸으며 공은 초연하였다. 그분이 눈 뜬 장님을 칭탁하였을 때 공의 애첩은 소변을 볼 때 옷을 벗고도 피하지 않았으며 속이는 일이 많았으나, 부인은 예전과 다름없이 공경히 대하였다. 공이 재기한 후에 말하기를, “부인은 나를 속이지 않았다” 했다. 아아, 10년간 이부자리를 같이하고 살아가는 동안 처첩은 그것이 칭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공의 지혜가 진실로 깊다.⁶⁰⁾

정수강은 연산군이 방탕하면서도 음란한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벼슬을 하지 않으면서 10년간 장님을 자처했다고 한다. 기록만을 놓고 본다면, 정수강 역시 연산군을 폭군이라 일찍부터 간파한 인물이 된다. 더욱이 연산군이 왕위로 있던 10년간이나 장님 행세를 했다는 것은 정수강의 인물됨이 강직하다는 것과 그의 지감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정수강 관련 기록을 『연산군일기』에서 찾아보면 위와 다르다. 정수강은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되었고, 이로 인해 연산군은 정수강을 영원히 등용하지 말라는 전교까지 내렸다.⁶¹⁾ 그렇지만 같은 해 가을에 일어난 중종반정으로 인해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에 녹훈되고 3대가 추증된다. 이렇게 본다면 정수강이 10년간이나 장님으로 행세했다거나, 연산군의 자질을 미리 알아보고 벼슬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된다.

이와 같은 정수강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연산군의 폭정보다는 정수강이 연산군과 어떤 관계를 맺은 인물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60) 當燕山荒澗，託爲清曠，削跡杜門，捫鏡摸牀，以終其世，雖史獄土禍，薦紳流血，而公超然也。方其託曠時，公之嬖妾，溲剝不避，事多瞞，而夫人敬，相待如他日。及公復起曰：“夫人不欺我。”嗟乎！十年於衽席之間，而妻妾罔覺其爲託也，公眞沈智哉。『與猶堂全書』(17)「家乘遺事」。

61) 전교하기를, “정수강은 영구히 서용하지 말라” 하였다. 傳曰：“丁壽崗永不敘用。”『연산군일기』 12년(1506) 7월 4일, 3번째 기사.

알 수 있다. 전형화된 폭군으로서의 연산군을 지감한 인물은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기억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산군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지감이 강조되는 기록이 거듭되면서, 문헌에 따라 관련된 인물의 형상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다음은 박영(朴莢)에 대한 기록이다.

갑인년에 성종대왕께서 승하시니 이로서 서울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병진년 봄에 병으로 사직하고 선산부의 낙동강 남쪽을 찾아 우거하였다.⁶²⁾

위의 글은 박영이 스스로 찬한 묘표(墓表)의 내용이다. 박영은 성종이 죽은 다음 해에 병으로 관직을 사직하고 선산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연산군에 대한 박영의 거부감은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위의 기록에서 박영은 모시던 성종에 대한 추모의 마음으로 인해 서울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박영에 대한 기록은 이후 다음과 같이 바뀌어간다.

- ① 강정왕(성종의 시호)이 돌아가고, 뒤를 이어 등극한 임금이 폐왕인데, 선생은 정치가 어지러워짐을 알고 바로 향리로 돌아가서 낙수가에 살며⁶³⁾
- ② 성종이 승하게 되자 연산군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선생은 연산군이 손수 성종이 기르던 사슴을 쏘아 죽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크게 떨려 그날로 병으로 사직하고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후에 옛일에 대해 논하던 자들은 당시 가장 먼저 낚새를 알아차린 것이라고 하였다.⁶⁴⁾

위의 두 기록은 모두 박영이 관직을 떠나게 된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①에서는 연산군이 즉위하자 바로 관직을 버리고 떠난 상황을 말한다. 그리고 박영은 연산군으로 인해 정치가 어지러워질 것을 미리 예견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박영의 지감과 인물됨이 드러난다.

②에서는 박영의 행동이 더욱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박영은 성종이 기르던 사슴을 연산군이 활로 쏘아 죽이는 것을 보자 그날로 병을 칭탁하

62) 甲寅, 成廟上昇, 自此不欲留京師, 丙辰春, 以病辭職, 來寓善山府, 卜洛之陽. 『松堂集』

(1) 墓表 「先生自撰」.

63) 我康靖王薨, 嗣立君是爲廢王, 先生知政亂, 卽去歸鄉里, 居洛水之上. 『眉叟記言』(別集 20) 丘墓文 「朴松堂先生碣銘」.

64) 會成廟昇遐, 燕山嗣位. 先生適見燕山手射成廟所養鹿體之, 大悸於心, 卽日謝病, 挈家歸鄉里. 後之尙論者, 以爲當時最先見機. 『松堂集』(4) 「諡狀」. 「시장」은 영조 23년(1747) 김재로(1682-1759)가 찬한 것이다.

여 관직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산설림초고』에 의하면, 연산군이 성종의 사슴을 쏜 날은 즉위한 바로 당일이다.⁶⁵⁾ 때문에 ②의 기록에 따르면 박영이 고향에 간 시점은 연산군의 즉위년인 갑인년(1494)이 되어야 하는데, 묘표에서는 병진년(1496)에 물러났다고 되어 있어 기록이 상충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박영이 연산군의 부정적 측면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인물이라는 세간의 평이다. 때문에 중요한 점은 연산군이 폭군이라는 그의 형상에 놓여 있기보다는 폭군인 연산군을 누가 가장 먼저 지감하였는가라는 점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박영은 다른 어떤 인물보다 연산군의 실체를 미리 알고 벼슬을 그만두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평하는 자들에게서 뛰어난 인물로 꼽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산군에 대한 형상은 이미 폭군으로 전형화되었기에 더 이상 그의 면모를 폭군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관련된 인물의 뛰어난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연산군의 형상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의 변화는 연산군이 아니라 연산군과 관련된 인물의 형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V. 맺음말

반정에 의해 폐위된 연산군의 관련 기록에는 재위 당시의 행적에 대한 부정적 면모가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후대로 가면서 폭군으로서 연산군의 면모를 점점 확대하고 재생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산군의 음행과 폭정이 결합되거나 허구적 사실이 부연되기도 하면서, 폭군으로서의 형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더 나아가 연산군은 중국의 폭군과 비견될 인물로 전형화되면서 후대에 감계가 될 수 있는 폭군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65) 성묘가 궁중에서 사슴 새끼를 길렀는데, 길들이기를 오래하여 항상 좌우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어느 날 연산이 옆에 모셨는데, 그 사슴이 와서 활으니 연산이 발로 찼다. 성묘가 언짢게 여겨 이르기를, “짐승은 사람을 의지하는데, 어찌 그리 불인한고” 하였다. 뒤에 성묘가 승하하고 연산이 즉위하던 날, 연산이 손수 그 사슴을 쏘아 죽였다. 成廟宮中養一鹿，馴擾之久，常不離左右，一日燕山侍側，其鹿來嘖之，燕山足蹴之，上不悅曰，“獸亦依人，何其不仁也。”後成廟升遐，燕山即位日，手射其鹿而殺之。『五山說林草藁』。

이와 같이 연산군에 대한 인식과 인물 형상이 전형화되면서, 폭군으로서 연산군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기록들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연산군을 지속적으로 기억의 장에 끼집어내면서 그와 관계를 맺고 있던 타자들도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후대로 갈수록 연산군과 관련된 인물들을 보여주는 과정이 주목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어느 인물이 연산군의 폭군으로서의 자질을 가장 먼저 지감하게 되었는가를 경주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록의 변동성은 결과적으로 그가 폭군으로서 인정된 상황에서 성군의 형상을 세워보려는 또 다른 인식적 맥락과 관련된다. 때문에 연산군 관련 기록의 전승과 변이과정은 당연히 연산군에 대한 새로운 형상을 창안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현재의 연산군에 대한 인식을 창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해왔다. 이는 연산군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산군의 실체와는 별개로 관련 기록이 축조되는 과정에 대하여, 이를 응집시켜 접근하려는 시각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 고 문 헌

- 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 Web DB.
- 金時讓, 『涪溪記聞』. 대동야승 17책.
- 金安老, 『龍泉談寂記』. 대동야승 3책.
- 朴英, 『松堂集』. 한국문집총간 18.
-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108-116.
- 尹耆獻, 『長貧居士胡撰』. 대동야승 13책.
- 李肯翊, 『燃藜室記述』. 민족문화추진회.
- 李裕元, 『林下筆記』. 대동문화연구원.
- 李珣, 『栗谷全書』. 한국문집총간 44-45.
- 李瀾, 『星湖僊說』. 민족문화추진회.
- 李廷馨, 『東閣雜記』. 대동야승 13책.
- 任輔臣, 『丙辰丁巳錄』. 대동야승 1책.
-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286.
- 曹兢燮, 『巖棲集』. 한국문집총간 350.
- 車天輅, 『五山說林草藁』. 대동야승 2책.
- 許篈, 『海東野言』. 대동야승 2책.
-
- 김범, 『연산군』. 글항아리, 2010, 1-395쪽.
- 변원립, 『연산군 그 허상과 실상』. 일지사, 2008, 1-288쪽.
- 송재용, 「〈미암일기〉의 서지와 자료적 가치」. 『퇴계학연구』 12, 퇴계학연구소, 1998, 137-139쪽.
- 신동준, 『연산군을 위한 변명』. 지식산업사, 2003, 1-480쪽.
- 이병희, 「조선전기 원각사의 조영과 운영」. 『문화사학』 34, 한국문화사학회, 2010, 111-145쪽.
- 지두환, 『연산군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8, 1-551쪽.

국 문 요약

연산군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연산군일기』에 기초하면서, 이후 다양한 문헌을 통해 기존의 기록이 재생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산군의 음행과 폭정이 결합되거나 허구적 사실이 부연되면서, 폭군으로서의 형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더 나아가 연산군은 중국의 폭군과 비견될 인물로 전형화되면서 후대에 감계가 될 수 있는 폭군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때문에 문헌 기록에 나타난 연산군의 형상은 연산군의 실체와는 별개로 축조된 것이다.

그리고 후대로 가면서 폭군으로서 연산군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경향과 함께 특정한 인물이 연산군과 관계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유지했는가는 지감의 문제가 관심으로 떠오른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의 연산군 관련 기록의 전승은 연산군에 대한 현대적 인식을 창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는 연산군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섬세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산군 관련 문헌 기록들을 응집시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고일 2012. 3. 20.

수정일 2012. 4. 30.

게재 확정일 2012. 5. 17.

주제어(keyword) 연산군(lord Yeonsan), 기록(archives), 폭군(tyrant), 인식(awareness), 형상(image), 전승(tradition)